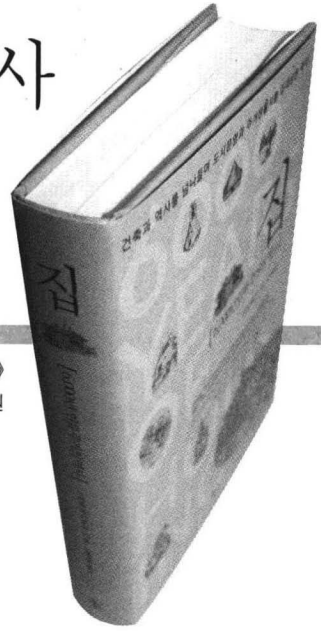


‘하늘의 우물’을 사랑했던 한 건축학자의 위대한 공간 탐사

다우 남미은 편집장



《집, 6000년 인류 주거의 역사》
노버트 쉐나우어 지음 | 김연홍 옮김 | 584쪽 | 값 35,000원

인류가 ‘지구’라고 하는 우주의 한 마을에 등지를 틀면서부터, 인간에게 ‘집’은 삶의 필수조건이 되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우리는 통째로 정리된 ‘집의 역사’를 읽어볼 기회를 좀처럼 가질 수 없었다. 여기 6000년이라는 방대한 시간의 바다에서 ‘주거 housing’이라는 그물 하나에 자신의 반생을 바친 사람이 있으니, 바로 《집, 6000년 인류 주거의 역사》의 저자인 노버트 쉐나우어 박사다.

그간 관련 연구자들의 시선이 온통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에만 쏠려 있을 때, 저자는 40년 동안 ‘주거 건축물’에 대해 연구·조사했고,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연구업적을 집약한 “주거 건축사의 바이블”과도 같은 책이다. 저자는 인류의 자취를 ‘주거 건축’이라는 스펙트럼으로 조명해 주면서, 문명발달의 역사 속에서 ‘집’이 어떤 의미와 배경을 갖고 모양을 달리해 왔는지를 풍부한 핸드메이드 그림과 함께 밝혀 보인다.

부시맨의 워프, 밤그티피그미족의 움막, 이누이트족의 이글루, 쿠베오 인디언의 말루카, 멕시코인의 자갈, 중국의 동굴식 주거와 이탈리아의 트롤로, 오리엔트문명의 전통주거와 중국과 일본, 인도와 아랍세계의 전통주택, 중세의 성채도시와 르네상스시대의 도시와 주택, 20세기의 리바이벌주택까지, 인류가 그때그때 시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지어온 ‘집’의 안팎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저자의 글을 읽고 있노라면, 마치 세계 각 곳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독자를 직접 초대하기라도 한 것처럼, 이색적이고 신선한 문화 속의 주거 공간들을 간접 방문해 보는 재미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크게 ‘도시 이전의 주거(1부)’와 ‘도시 형성 이후의 주거’로 나뉜다. 도시 형성 이후의 주거는 다시 ‘동양(2부)’과 ‘서양(3부)’으로 나뉘어 소개된다. 사륙배판의 큼직한 판형에다,

500쪽을 가뿐히 넘기는 분량의 이 책을 비전공자들이 읽으려면 비지땀끼나 흘려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가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본능적인 호기는 흘린 땀보다 큰 열매를 선사하리라 믿는다.

저자는 또한, ‘도시’라는 한정된 공간 위에서 마글거리며 사는 인간 군상의 삶에 대해 통절한 메시지를 던진다.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생산’ 중심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찌면 우리는 진정한 집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던 것은 아닌가? 집은 단지 노동으로 지친 인간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숙소만은 아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다. 집은 사람들 사이의 더 행복한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는 곳이며, 무엇보다도 자연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저자는 하늘을 향해 열린 마당을 가진 동양의 내향형 중정(안마당) 주택이 가진 건축요소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편집자로서, 나는 이 책이 넓고 깊고 풍부하다고 자부한다. 건축 전공자들에게는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선사하고, 비전공 일반인들에게는 색다른 세계를 맛보는 즐거움을 선물하리라 생각한다. 게다가 평생 소장해 놓고 읽어도 뒤틀리게 튼튼하고 세련된 양장본으로 만들었다. 이 책 하나면 최소한 집에 관한 한, 당신은 자랑할 만한 지식을 한 꾸러미 갖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부디 이 책이 어두운 책창고에서 나와, 더 많은 독자들의 품에 착하게 안겨서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주기를, 책이 출간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나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

보편적인 인간에 대해 눈뜨기

인물과사상사 홍석봉 | 편집장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 박노자 지음 | 384쪽 | 값 13,000원



4년전 쯤으로 기억한다. 전화를 받았는데 박노자 교수였다. 그는 한국 사회를 예리하게 파헤친 글로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우리 출판사에서 단행본뿐만 아니라 월간 <인물과 사상>도 발간한다. 그래서 전자메일로 박노자 교수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다. 그 인연으로 한 번 만나자는 연락을 했고, 몇 달이 지나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만난 곳은 광화문 근처의 삼계탕집! 한참 더운 여름이었다. 그날 나는 하얀 피부의 백인과 삼계탕도 먹고, 깍두기도 먹으면서 실컷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물론 박노자 교수가 한국말을 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에게서 18세기 조선의 역사나 정약용의 문집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는 한국사를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이다. 정말 나를 감동시킨 것은 그의 인품이었다. 서양인의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매너, 학자의 정갈한 인격에 동양적인 겸손함과 예의까지 갖췄으니 마치 동서를 아우르는 인격인 듯싶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나서 이를 확인해보시라.

나는 박노자 교수가 방학이 되어 한국을 찾을 때마다 만났다. 그리고 월간지에 연재되는 글이나 단행본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물론 대화는 거기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다. 더러 우리는 한국의 자그마한 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다. 나는 그와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웠을까?

그것은 한국인으로서가 아니라 세계인으로서의 나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었다. 아직도 우리에게서 단군의 자손이니, 백의 민족이니 하는 말로 피의 동질성을 이야기하며 정체성을 찾는 경향이 강하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피부색과 눈동자 색깔이 다른 사람이 타면 자꾸만 시선이 그 쪽으로 쏠리곤 한다. 외국인을 만

나면 우리가 갖게 되는 관심도 천편일률적인 경향이 강하다. 박노자 교수처럼 귀화한 한국인을 보면 뭔가 으쓱하는 마음으로 한국 문화의 무엇이 러시아보다 더 좋았느냐고 물어보고 싶지 않은가! 그리고 한국의 가을 하늘에서 김치에 이르기까지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나올 것이다. 뿐만 아니다. 그(그러니까 귀화한 한국인)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토종(?) 한국인의 것과 다르다는 것도 그를 만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었다.

《나는 폭력의 세기를 고발한다》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국의 근·현대사로 확장시킨 책이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절대적인 역사가 아니다. 그 역사는 지금의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을 은연중에 반영한 역사다. 박노자 교수는 군대, 영웅, 스포츠, 종교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의 100여 년의 역사에서 '경쟁의 영웅'이 되게끔 강요하는 '힘'의 논리를 발견해낸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한국 사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인간을 국민으로, 씩씩한 남성으로, 현모양처로, 오만한 명문대생으로 만들었는지 파헤친다. 이러한 갖가지 이념과 굴레와 집단의 구분들이 너와 나의 차별을 합리화하고, 인간의 만남에 폭력을 개입시키고, 편협하고 왜소한 인간으로 우리들을 만들어간다.

그렇다면 그가 생각하는 인간은 무엇일까? 바로 자율적이고 보편적이고 존엄한 인간이다. 각자의 재능을 서로 나누고, 함께 세계를 생각하며 자율적으로 생각하며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이다. 아마도 이것이 이 책의 부제처럼 그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근대화의 방향이자 그가 탐구하는 주제일 것이다. 나는 편집자이다. 많지 않은 월급을 받으며 일하고 있지만 나름의 보람이 있다면 박노자 교수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스스로에게 자문해봐도 의미 있는 책을 세상에 선보이며 살 수 있다면 보람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홍석봉**

그때도 나는 책을 만들고 있었다

청솔출판사 이정운 편집실장



《어린이 북한 바로알기》
도희운 지음 | 손민지 그림 | 184쪽 | 값 8,500원

“그리고 보니 넌 그때도 책을 만들고 있었제.”

“허허, 그렇네요.”

그건 10년 만의 만남이었다. 간혹 TV 속에서 북한 인권 운동가로 일하는 모습을 보며 반가움이 앞섰지만 바쁜 일상 속에 연락처를 수배해서 만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청솔에서는 몇 년 전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 출간으로 매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어린이 책이 그렇듯 그 다음 ‘바로 알기’ 시리즈 후속작이 중요했던 터에 북한·통일이라는 화두는 실로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북한 전문가가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좋을까 하다 적절한 인물로 그가 생각난 것이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그를 만났다.

“형, 그때 같이 일했던 S 기억나세요?”

“S? 아! 그래 그 친구! 결혼해서 잘산다제.”

형과 만난 것은 93년도 가을 해화동 홍사단에서였다. 아마 그 당시 정치적 시류 때문이었을까? 문민정부 출범 이후 홍사단에서는 아카데미 30주년 기념 사업회를 추진하고 있었다. 30년 동안 아카데미는 학생운동의 요람이었고 우리나라 민주화의 뿌리가 돼왔던 터라 그 의미는 남달랐다. 나는 그때 30년사 연감 작업을 맡았던 임시 간사였고 형은 사업 추진 간사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 S가 있었다. S는 홍사단 청소년 분과의 청소년 상담교사였는데 쾌활한 성격에 얼굴엔 주근깨가 서려 있는 앳된 모습이었다. 남몰래 나는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형은 아직 연락이 되나 봐요?”

“지속이 알면서 그라노? 그때 이후로 나도 못 본 지 오래다.”

그의 어투는 예전이나 별반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학생운동으로 투옥되었다가 문민정부 특별사면으로 나왔던 그는 경성

도 사투리가 유독 남성다우면서도 행동 또한 투옥되기 전 20대 초반의 꿈 많은 청년 그대로였다. S가 그에게 또 다른 감정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웠으리라. 내가 S에게 쉽게 다가서지 못해 안타까워하던 어느 틈엔가 둘은 둘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연감 편집 작업이 다 끝나자 나는 홍사단을 떠났다. 그 후 가끔 S와 그는 내게 안부 전화를 했다. 그리고 한 일 년쯤 지났을까, S의 슬픈 목소리를 들은 이후로 S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는 몇 해 동안 더 만났다. 그는 술자리에서 가끔 그녀에 대한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내게 주절주절 얘기했다. 그 얘기들은 마시던 술처럼 썼다.

“그런데 니 아직도 그 애 이름 기억하는 걸 보니 좋아했었나 보제?”

“아... 아니요. 이번 책은 어린이용이니까 좀더 객관적이어야 해요. 어린이들에게 북한을 아주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로 알려야 하니까요.”

그는 심혈을 기울여 책을 집필했다. 북한 탈북자들을 통해 방송에서도 보지 못한 사진자료와 아동용이라 쓸 수 없는 동영상까지 직접 수집했다. 그의 그런 노력 때문이었는지 책은 거의 모든 일간지가 리뷰를 쓸 정도로 잘 완성되었다. 그렇게 나온 책이 《어린이 북한 바로알기》라는 책이다.

나는 그때도 책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나는 책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나는 10년 만에 다시 그를 만나 그녀의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것이다. **★**

맨발의 '젊은 천사'와 함께 여름을

세계사 김혜선_편집부

《젊은 천사》 김원우 지음 | 288쪽 | 값 9,500원



백년 만의 폭염이라는 살벌한 전령으로 시작된 여름의 초입, 서둘러 물러간 봄을 아쉬워할 여유도 없이 숨가빴다. 사방 사태진 개망초와 제대로 눈도 한 번 맞춰보지 못했다. 한 권의 번역소설과 한 권의 창작집 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문. 어느 여름인들 덥지 않은 여름이 있었을까만 올여름엔 사옥 준공과 더불어 사무실 이전에 사옥 이전식까지, 모두 더위가 한창 농익을 무렵 진행이 되었고, 그 시간들을 함께했던 책들이기에 당분간은 각별한 느낌으로 기억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두 권의 책은 제목에 같은 단어가 들어가는 공통점까지 있었다. 프랑스 작가인 미셸 뤼노의 장편소설 《슬픈 천사여, 안녕》과 김원우 중편소설집인 《젊은 천사》가 바로 그들이다. 잠깐, '그들'이라고? '그것들'이라 해야 하지 않나? 나는 잠깐 고개를 가웃해 보다 이내 생각한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책에도 격이 있는 법. 물론 이때의 '격'은 비주얼보다는 그 '책'이 담고 있게 마련인 의미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시 생각한다. 우연히 장르도 같은 이 두 권의 책 중, 어떤 것이 '우리 출판사 이 책'이라는 명백한 단수 지시 대상으로 적절할까? 번역소설이 갖고 있는 어찌 해볼 도리 없는 한계를 생각한다면 결론은 이 미나 있었다.

김원우 선생님의 《젊은 천사》는 애초 계간 <작가세계>에 두 계절에 걸쳐 전재되었던 두 편의 중편소설을 묶어낸 것이다.

글쓰기를 가르쳤던 오래 전 한 스승은 한 작품에 같은 단어가 두 번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작가는 새 작품을 시작할 때마다 국어사전을 새로 산다고 하였다. 산문문학에서 어휘가 차지하는 비중을 말해주는 것일 터.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젊은 천사》에 실린 표제작과 <병어리의 말>, 이 두 편의 중편으로 나는 사전 한 권을 가졌다. '강강하다' '거레' '늑

속하다' '다쫓치다' '도스르다' '새 까먹은 소리' '시드럽다' '이아치다' 등. 나는 끊임없이 사전을 뒤적였고 참 많이 부끄러웠다. 국어라고 다 같은 국어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출판에 관한 한 어지간한 편집자를 능가하는 선생님의 까다로움은 기실 작품을 처음 접했던 순간에 짐작했어야 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표지는 물론이고, 속표제지 디자인부터 본문 서체에서 자간, 행간까지 일일이 확인하시는 모습은 사실 까다로움이라기보다 장인다운 열정의 한 단면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책은 사옥 이전식에 맞춰 출간되었다. 행사에도 참석하실 겸 사무실에 들르신 선생님은 지인들에게 보낼 책들에 사인을 하고 봉투에 적어드린 그들의 주소와 책의 사인을 다시 한 번 일일이 확인하며 멋쩍은 표정으로 말씀하셨다.

"나는 나 말고 아무것도 믿지 않아요."

컴퓨터와 휴대폰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 당신의 펜과 오감만을 믿는다는 선생님. 엽기와 잡기, 홈드라마와 패러디로 흘러가는 듯한 요즈음의 한국문학이 가스레인지와 은수저로 만들어낸 '달고나'라면 휴대폰도 없는 원시인 김원우 선생님의 글은 제대로 갈아 만든 콩국수나 군내 없이 맛나게 곱삭은 목은지일지도 모르겠다.

작가 김원우의 소설로 쓴 소설창작론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가슴 찢해지는 우리 이야기더라. 내 이야기, 남의 이야기, 세상 이야기 만드느라 바쁜 동안 우리 이야기를 후련하게 서글프게 그리고 투명하게 지어놓았더라'는 한 습작생 독자의 글이 가슴에 와닿는 소설집 《젊은 천사》는 배낭 둘러메고 맨발에 샌들을 신는 만년 열혈 청년 작가 김원우가 우리 문학의 '젊은 천사'인 또 한 권의 증거이다. **한문**